

공정위, 조사국 기능 부활... 거대 플랫폼·재벌기업 정조준

국민권정부 1주년 간담회

주병기 위원장, 주요 추진과제 발표
역대최대 규모 조직·인력 확충 단행
담합 등 불공정행위 처벌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날로 지능화되는 플랫폼 독과점과 대기업집단의 변칙 횡포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 확충과 고강도 제재 카드들을 꺼냈다. 법리 다툼을 넘어 빅데이터와 알고리즘 싸움이 된 최신 시장 환경에 맞춰 '경제분석국'을 신설하는 한편, 과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 기능을 부활시켜 쿠팡·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과 재벌 기업들을 정조준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위 조직·인력 확충 방안 및 향후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37명(본부 84명, 지방사무소 70명 등) 규모의 조직·인력을 확충한다. 관련 직제 개정 절차는 오는 6월 내 마무리되며, 사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간 조성이 완료되는 4분기부터 본격 작동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과 대기업 사건을 전담할 국(국) 단위의 '중점조사기획단(40명 규모)'이 신설된다. 기존 중점조사팀(7명)에 33명을 대거 증원해 3개 과(중점조사 1·2·3담당관) 체제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2005년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의 부활로 해석된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전담

하며 기업들의 저승사자로 불린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특히 쿠팡, 네이버, 배달의 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들을 직접 지목했다. 그는 "최근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배민 등 플랫폼과 관련해 다양한 법 위반이 결합한 복합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복합적인 사건을 복합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조직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특수조직·기동대가 필요했다"고 배경

을 설명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자사우대 등 신유형 기술 무기에 대응할 '두뇌' 조직도 강화된다. 기존 과 단위였던 경제분석 기능을 국 단위로 확대한 '경제분석국(37명 규모)'이 신설된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일선 현장은 이제 법리 다툼에서 데이터와 통계의 싸움"으로 전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며 "박사급 전문인력을 전면 배치해 공정위의 분석 역량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혔다.

독점·품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초강수법 개정안들도 대거 공개됐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기업 총수(동일인)를 겨냥한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현행 형벌(1억 5000만 원 이하 벌금)만으로는 법 위반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동일인에게 정액과징금 200억 원, 100억 원, 50억 원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법원이 김범석 쿠팡 Inc의 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

다. 그는 "쿠팡 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며 "허위사실이 입증됐을 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 제재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기간 은폐되는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시장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한(등록·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현재 최대 12년인 담합 처분시효를 사실상 행정처분 최장기한인 '최대 15년'까지 늘리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배달앱 및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신속한 심의 계획도 공식화했다. 전방당, 국고채 등 주요 담합 사건은 가급적 3분기에 심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특히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최근 신청한 '최혜대우 요구 사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신속히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한전, AI·빅데이터 기반 전력망 혁신 추진

수요분석 고도화·첨단설비 최적화
연간 1100억 전력구입비 절감 기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전력망 운영 혁신을 통해 매년 1100억 원에 달하는 전력구입비 절감에 나선다. AI 기반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첨단 전력설비 최적화를 통해 데이터센터 확대와 전기차 보급 등으로 급변하는 전력 소비 패턴에 대응하고 전력망의 고질적인 병목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AI 기반의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고도화하고, 올해 준공된 첨단 전력설비의 운영 방식을 최적화해 전력망 운영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전은 기존 전력망 수요 분석 모델을 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했다. 과거 모델이



서울·경기·부산 등 일부 지역의 데이터 159개에 의존했던 반면, 새롭게 완성된 신규 모델은 전국에서 추출한 9만 5000개의 실제 전력망 운영 데이터를 AI로 분석했다. 최신 트렌드인 데이터센터와 전기차의 소비 특성까지 정밀하게 반영되면서 전력망 운영의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갔다.

한전은 이 AI 모델 도입을 통해 동해안과 호남지역 저비용 발전기의 발전량 조정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연간 약 600억 원의 전력구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첨단 설비를 활용한 전력망 안정화 대책도 더해진다. 한전은 올해 준공된 신태백·신양양 변전소의 '초고압 직류 송전 계통 안정화 설비(STATCOM)' 운

영 방식을 최적화했다. STATCOM은 전력망의 전압이 불안정해질 때 전압을 실시간으로 올리거나 낮춰 균형을 잡는 첨단 장치다.

이번 최적화로 전력망 고장 발생 시 전압을 즉각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게 되면서, 동해안에서 생산된 동급 대비 저렴한 전기를 수도권 등 수요지로 더 많이 송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를 통한 추가 전력구입비 절감 예상액만 연간 약 500억 원에 달한다.

김동철 한전 사장(사진)은 "AI를 활용한 전력망 운영 혁신은 국민들께 보다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한전은 전력망 운영 효율을 높여 국민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고물가에 소비 양극화... 업태별 명암 뚜렷

산업부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중동 정세 불안 등 지속되는 고물가 여파로 유통업계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프리미엄 명품을 찾는 '럭셔리 소비'와 극가성비를 추구하는 '실속형 소비'로 패턴이 쪼개지면서, 백화점과 편의점·온라인은 완연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중간 지대에 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는 깊은 부진의 늪에 빠졌다.

27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4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주요 유통업체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다. 오프라인(6.7%)과 온라인(7.5%) 모두 외형적 성장을 기록했으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업태별 명암이

뚜렷했다. 특히 온라인 매출 비중은 전체의 60.3%를 기록하며 오프라인(39.7%)을 압도했다. 온라인은 19개월 연속 오프라인 매출을 앞지르며 유통업계의 절대적 대세로 자리 잡았다.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백화점의 독주에 눈이 쫓긴다. 4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21.7% 급증하며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엔데믹 이후 패션 수요 회복과 더불어 명품을 대변하는 '해외유명 브랜드' 매출이 38.1% 폭등(13개월 연속 증가)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이외에도 여성정장(14.7%), 여성캐주얼(21.1%), 남성의류(12.8%) 등 의류·잡화 부문 전반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편의점 매출은 전년 대비 3.3% 늘어나

며 백화점과 마찬가지로 10개월 연속 성장세다. 이른 무더위로 음료 등 가공식품 매출이 5.1% 늘었고, 즉석식품과 생활용품 등 전 부문이 골고루 성장했다.

반면 중간 가격대와 일상적 기능을 담당하는 대형마트(-6.6%)와 SSM(-6.9%)은 일제히 고전했다. 대형마트는 가전·문화(+10.7%) 부문을 제외하고 가정·생활(-9.6%), 식품(-9.4%) 등 주력 상품군 부진 뚜렷하다. SSM 역시 식품(-7.1%)과 비식품(-5.1%)이 동반 하락한 것은 물론, 객단가와 구매건수가 모두 떨어지며 점포당 매출도 5.4%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9.7%), 가전·전자(7.3%) 등 전 영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글로벌 무대에서 부는 'K-뷰티' 열풍에 힘입어 화장품 매출은 15.4%나 폭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aT, 'K-스낵' 수출 앞장... 1500만弗 상담

美 'Sweets&Snacks Expo' 참가

북미대륙 최대 스낵전문 식품박람회에서도 K-푸드의 진가가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쌀과자와 식혜 등 쌀 가공 제품이 인기를 모았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국내 식품수출기업 등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스낵전문 박람회 '2026 Sweets&Snacks Expo'에 참가해 1500만 달러 규모의 상담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이번 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꾸

려 10개의 K-스낵류 벤더들의 참가를 지원했다. 식혜와 쌀과자 등 쌀 가공 스낵을 비롯해 다양한 맛과 식감의 스낵과 젤리 등을 선보이며 바이어와 방문객의 이목을 끌었다.

aT의 전기한 수출식품이사는 "미국은 올해 4월 말 기준 한국 과자류 수출의 37%를 차지하는 제1 수출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가 벤더들의 제품이 현지 대형 유통채널 입점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수도권매립지관리공, ESG 전문인력 양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사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전문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7일 공사에 따르면 이 같은 인력 양성 방침은 기관 주요업무 전반에 지속가능경영 관점을 반영한다는 목표 아래 마련됐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사회적 가치 확대 등을 도모한다는 중장기 계획이다.

전문인력은 실무 중심으로 양성할 계획

이다. 특히 단계별 교육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직무 특성에 맞춘 맞춤형 교육의 운영을 실시하게 된다.

주요 교육과정은 ▲기초 및 종합과정 ▲환경정책 및 법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생물다양성 대응 ▲주민참여 협력 체계 ▲공시 검증 과정 등이다. 직무별 특성에 맞춰 교육을 진행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국마사회, '컴플라이언스 어워즈' 대상

한국마사회가 '2026 상반기 대한민국 컴플라이언스 어워즈'에서 공기업 부문 대상을 받았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 어워즈 행사는 기업과 공공기관의 준법경영, 윤리경영, 내부통제 등 이른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둔다.

마사회는 경마사업의 공정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내부통제와 윤리·준

법경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단순한 국제표준 인증 유지에 머무르지 않고,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리스크 평가체계, 현업부서 사전 점검, AI 기반 관리 시스템 등을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준법경영 체계를 구축한 점이 인정받았다.

/세종=김연세 기자